바람

1

아저씨.

남자는 대답이 없다.

저기요, 아저씨.

경찰은 답답하다.

당신이 있던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다고요.

경찰이 몰아세우는 그는 여전히 답이 없다. 경찰은 그날을 떠올리며 자신의 깊은 곳으로부터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아저씨?

남자 또한 그날을 생각하고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날. 자신이 믿던 모든 것들이 자신을 감고 휘몰아치던 날. 바람이 또다시 거세게 불던 날.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졌다고.

경찰은 과할 정도로 남자를 다그친다.

그래도 남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마치 잠을 채 들지도 못한 채 깊은 꿈에 빠져버린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허공만을 쳐다본다. 살짝 벌려진 입과 힘없는 동공, 이따금 벌렁거리는 콧구멍, 그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처럼 그의 정장도 엉망이다.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넥타이는 헐거워져 있었다. 정장은 바람을 맞은 채로 굳어버린 듯했고, 땀으로 엉킨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경찰의 다그침에도 그는 변함없다. 의자에 앉아 있다기보단 걸쳐진 것에 가까웠던 그의 자세도 그대로이다.

쾅.

결국, 경찰은 참지 못한다. 책상을 힘껏 내리친다. 남자가 움찔한다.

대답해. 당신은 봤다고. 봤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사람이 죽었다고. 그 높은 곳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는 것을 당신은 보고만 있었다고. 망할,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남자는, 정말 결백하게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결백한 나머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 그는 그저, 그의 감정을 제일 비슷하게나마 표현하자면, 그래, 그는 무지하되 행복하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그의 순박하고 엉뚱한 얼굴에 흐릿한 행복이 스며든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분노는 깊어만 간다.

후.

경찰이 깊은 한숨을 내쉰다. 심호흡한다. 후, 하.

왜 막지 않았어.

남자의 눈이 경찰을 향한다. 경찰서에 들어선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경찰의 목소리가 잦아든다.

당신, 신고라도 할 수 있었잖아. 경우는 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었잖아. 사람이 뛰어내리려 한다고, 막아봤지만 소용없다고, 막지 못하겠다고,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잖아.

남자가 뚫어질 듯이 경찰의 눈을 쳐다본다.

왜, 도대체 무슨 망할 이유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지켜보던 그의 동료 경찰이 천천히 다가온다.

왜, 왜 그랬냐고.

이제 그의 동료는 그의 어깨를 잡는다. 그는 뿌리친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급히 꺼내느라 사진 일부분이 구겨졌다.

이 사진을 봐. 학생이 죽었잖아. 왜 말리지 않았냐고, 왜 이 학생이 떨어지는 걸 보기만 했냐고.

사진 속에는 경찰로 보이는 남자가 앳된 학생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둘 다 웃고 있었지만, 미묘하게 감도는 어색한 분위기가 그들이 가까운 사이는 아님을 말해준다.

경찰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남자의 눈이 이젠 자기 자신의 눈마저 뚫려 버릴 듯 감지도 않는 채 깊어져 간다. 이 세상의 모든 빛을 흡수하려는 듯, 그의 동공 주변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남자가 가리고 있는 뒤 풍경이 남자의 눈을 통해 보이는 듯하다고 문득 생각한다.

경찰이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는 순간, 남자가 드디어 그 무거웠던 입을 뗐다.

막을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막지 않은 거예요.

경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당신 그거, 범죄야.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다니.

남자도 경찰을 따라서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날아올랐어요.

2

호은은 한 아파트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날 왜 그곳에 갔던 건지, 훗날에도 그는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올라간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들 사이에 에워싸여 있었다. 같은 복장으로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군인들 중 한 명처럼, 아파트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저 수많은 복제품들중 하나에 불과한 듯했다. 후에 호은은 그 아파트의 위치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옥상 문을 연 그의 눈에 들어온 풍경을 그는 믿지 못했다. 태풍이라도 올 듯이 깊고 뿌연 하늘과 옥상 난간이 만나는 그 경계에 한 남자가 아슬아슬하게 서서 하늘과 옥상의 직선을 요동치게 하고 있었다. 옥상 난간에 선 채 그는 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그의 옷자락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몸은 옥상 바닥이 아닌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호은은 그의 등을 마주하게 되었다.

호은의 시선이 남자의 등에 도달한 찰나의 순간, 호은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신음하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호흡하기 어려워 보였고, 감정은 넘쳐 흐르다 못해 몽땅 쏟아져 버린 듯했다. 그는 엎드린 채 연이어 주먹으로 그의 심장 부근을 내리쳤다.

그 소리에 옥상 난간에 서 있던 남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난간에서 내려와 호은을 향해 달려왔다.

이봐요, 아저씨. 울지 말아요. 무슨 일 있어요?

호은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흐느끼기에 바빴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연거푸 들이마시는 숨들이 모두 폐에 도달하지 못한 채 거대한 벽에 막혀버린 듯했다. 답답함에 명치를 내리쳤다.

아저씨,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호흡해 봐요. 좀 진정이 돼요? 숨 쉬어요, 숨.

10분에 가깝게 호은은 숨을 가듬어야 했다. 그 시간이 호은에겐 평생처럼 느껴졌다. 그 이후에야 호은은 조금이나마 진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기 서서 무얼 하려 한 거예요?

네?

뛰어내리려 한 거죠. 맞죠. 죽으려고 한 거잖아요.

아, 아니에요. 오해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호은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그를 남자는 오랫동안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호은이 심호흡했다.

이제 괜찮아요.

호은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인사가 늦었네요. 제 이름은 경우에요.

호은이 붉어진 눈으로 경우를 바라보았다. 그걸 왜 나에게 말해주냐는 표정이었다.

아까 무슨 말 하지 않았나요?

네? 아, 맞아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아세요?

경우가 작게 웃었다. 기분 나쁘지 않은 미소였다. 그의 얼굴은 그의 나이가 절대 많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과 눈은 그가 자신의 나이에 비해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버텨왔음을 보여주었다. 호은은 그런 경우의 얼굴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경우는 청바지와 흰색 남방을 입고 있었는데, 오래 입은 듯이 해져 있었지만, 그와 잘어울렸다.

아니요, 오늘 처음 뵙는 거죠.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호은은 잠시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까 뽑아낸 눈물들이 멍한 기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였더라.

제 이름 들으셨죠? 경우에요. 표경우.

호은이 놀란 듯 경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저 위에 서 있는데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하하. 별것 아닌 것에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참 밝다고 호은은 생각했다. 동시에 어이가 없었다.

왜 서 있었어요?

당신을 기다리느라고요.

호은이 이제는 정신을 차린 듯했다.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다.

아니,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여기 올지 어떻게 알고, 하필이면 저곳에서, 왜 그랬어요.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이곳에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그 방식이나 이유는 알지 못하죠. 그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당신은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원리들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나요? 저는 그저 오늘이 그 날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느낌을 받은 이유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겠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름이 뭔가요? 보고 싶었어요.

호은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다.

제 이름이요?

네. 실례가 아니라면요.

호은입니다.

그 순간 큰바람이 불어왔다. 경우와 호은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멎자, 경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바람이 아주 많이 부네요. 그날도 그랬는데.

다시금 호은이 놀란 표정으로 경우의 눈을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경우는 잠시 깊은 사색에 빠진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왜 저를 보고 놀라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이 죽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을 처음 봐서 눈물을 흘리신 건가요? 저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네요.

아, 죄송합니다. 더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그사이 큰 바람이 한 번 더 일었다.

바람이 그치자, 경우는 호은이 다시 흐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바람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경우는 한 손으론 호은을 토닥이고, 한 손으론 자신의 짧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경우의 짧은 머리는 군인을 연상시켰다. 경우의 손은 호은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듯했다. 호은이 이번엔 금새 진정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바람이 다시 불고 있었기 때문에 경우는 자기 생각보다 큰 소리로 말해야 했다. 호은은 경우를 그저 쳐다보고만 있었다. 대답하기를 잊은 듯 보였다.

그럼 괜찮으신 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3과 4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다. 경우는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제 아버지는 작가였어요. 무슨 작업을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 눈은 항상 꿈을 꾸고 있는 듯했죠. 수염을 기르길 고수하셨고, 머리도 길렀어요. 항상 챙이 짧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 때문인지 그의 눈은 더욱 깊어 보였어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태어난 지 10년이 되자 별거를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어머니는 그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꽤 엄한 분이셨어요. 예술가였던 아버지와는 다른 면이 많았죠. 아마 그런 점들이 두 분을 지치게 했을 거예요. 물과 기름이 채 1분도 섞여 있지 못하는 것처럼요. 다른 점이 있다면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든 서로를 붙잡고 계셨던 거겠죠. 아무튼, 그런 어머니의 눈을 피해 아버지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해주는 이야기들이 좋았거든요. 주중엔 학교와 학원이 시간을 주질 않았지만, 주말엔 어머니를 피할 틈이 조금 있었어요. 독서실에 가겠다고 한 뒤 항상 아버지의 작업실을 찾았어요. 따로 아버지께 연락을 드리진 않았지만, 아버진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통하

는 부분이 있었다고 느꼈어요.

아버지는 제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당신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이야기, 반복되는 공부에 지쳐 다 내팽개치고 떠나버렸던 이야기, 어머니와 사랑했던 이야기,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어머니에게선 절대 들을 수 없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셨어요. 어떤 모습이든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 모습은 바로 너의 모습이 될 것이라 하셨어요. 어머니께선 저에게 절대 해주시지 않았던 이야기였죠. 아버지는 이상주의자, 어머니는 현실주의자. 감히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인생을 살아오신 두 분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랬어요. 어머니라는 현실 속에서 열심히 뛰었고, 아버지라는 이상 속에서 헤엄치고 날개를 폈어요. 꿈꾸는 모든 자가 그렇듯이, 저는 아버지의 바다를 항상 갈구했어요. 아버지는 제게 꿈을 꾸라 하셨고, 자유롭게 꿈을 꾸게 해주었어요. 그 안에서 저는 행복했고, 그렇기에 계속 어머니의 눈을 피해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렇게 저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갔죠.

하루는 아버지께서 절 바다에 데리고 가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제대로 바다를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시지도 않고 저를 차에 태운 뒤 운전해서 바다로 갔죠. 그날만큼은 아버지께서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저도 아버지를 따라 말없이 바다를 응시했죠. 파도 소리, 푸르고 깊은 색의 바다, 자유로운 갈매기, 그날 전 깨달았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이상주의자가 되었다는 걸요.

사람들은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미쳤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해요. 전 꾸준히 아버지와 이야기하며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채로 아버지의 말을 듣게 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미쳐버린 예술가.

하루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했다.

네,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다른 날과 같이 아버지와 함께 꿈을 꾸던 날, 아버지께선 당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날고 싶어 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다. 호은 또한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날, 사랑하는 두 여인을 모두 잃은 날, 어쩌면 자신을 옥상으로 이끌게 된 어떤 알지 못할 용기의 씨앗을 근본적으로 그에게 심어줬을지 모를 날.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여보. 이 말이 그토록 아프다는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입안에서 곱씹고 곱씹지만 정작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젠 없다는 것,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한번 스쳐 갔기에 그는 더욱 쓰라렸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은 10년 전 떨어졌다. 그리고 다신 올라서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는 그로부터 1년 후 그의 곁을 떠났다. 그렇게 그는 1년 사이에 사랑하는 두 사람을 통째로 잃었다.

왜 나를 떠났을까. 왜 나를 고통 속에 살게 했을까.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슬퍼해도 알 수 없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더는 그의 곁에 없었다. 어쩌면 그들도 모를지 몰랐다. 자신들의 선택이 그를 어떤 방식으로 아프게 할지 모른 채 그저 저질러 버린 걸지도 몰랐다. 어딘가 있다면 대답해주길 원했다. 사소하고 감정 없는 사과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다. 미안해요. 아니, 자신이 사과할 기회를 주길 원했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 말을 이제야 하게 되어서, 아니, 할 수 있게 해다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에도 싫은 소리 하나 할 수 없었으며, 되려 아프다고 할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로 죄책감에 뒤틀리며, 사과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 울부짖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욕했다. 딸 하나 구하지 못한 병신. 슬퍼하는 아내를 품을 용기도 없던 무능력한 놈. 그러나 사실, 이는 그의 믿음일 뿐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위로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없는 곳에서는 무능한 아버지라고 말할 것이라 믿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다. 그대들은 아느냐고, 한마디 욕설보다 두려운 한 침묵을. 그대들은 어찌하여 아는 척하느냐고, 이제쯤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너희들은, 왜 망할 당신들은, 그토록 기만하는 것이냐고. 힘내라고, 괜찮을 거라고, 거 보라고, 잘 버텨내고 있지 않느냐고, 힘들 땐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힘을 주려는 이들에게 그는 되려 외치고 싶었다.

그래, 너희들은 이정도의 인간은 이정도의 대우조차 과분한 것이라 여길 테지. 그

러는 너희들은, 그래, 너희는 얼마나 당당한가. 당신들은 다를 것 같은가.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쌓인 분을 푸는 것도 자존감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겐 없는, 존엄성.

10년. 그래, 10년이면 많이 버텼지. 하나님도 내가 10년 정도 버틴 거로 정상참작 해주시지 않을까. 거룩하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를 괴롭히는 가장 큰 것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왔음에도 죄인이 되어 벌 받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나, 그의 생각에도 그는 죄인이 맞는다는 것이었다. 모순의 연속이었고, 그럴수록 하나님, 오 하나님, 그를 욕할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불던 날, 옥상의 남자를 만난 날, 그는 출근하지 않았다.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얼마 전 그는 홀린 듯이 바다로 향했었다. 그래, 나를 덮치는 이 파도가 나를 친구로 받아줬더라면, 바다가 삼킨 수많은 영혼이 나의 단짝이 되어 주었다면. 그래, 그랬다면. 헛웃음이 나왔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하늘을 나는 방법은 간단해요. 믿는 거죠.

터무니없을 정도로 평범했다. 동시에 터무니없이 어려웠다.

믿어야 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잠재된 날개를 깨우고, 날개가 사람은 그런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에서 행복을 얻죠. 물론 아무나 이런 날개를 가진 건 아니에요.

아들아, 믿어야 한다. 우린 꿈꾸고 믿어야 해. 우리가 꿈꾸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꿈꾸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린 특권을 쥔 사람들이야.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에요. 제게 희망을 준 이야기였죠.

같은 성씨를 가진 한 가문의 사람들만이 날 수 있다.

아버지가 제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계속 해주었던 이야기에요. 진부하죠. 알아요. 하지만 전 믿어요. 왜냐하면, 전 봤거든요. 바람이 불던 날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비상을 목격했다.

사람들은 제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미쳐버린 나머지 하늘을 날 수 있

다고 믿어 결국 뛰어내렸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 알았죠.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라 날아올랐다는걸. 바람이 불던 날, 전 봤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솔직하게 저도 그날까진 마음을 다해 믿지 못했어요. 사람이 정말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정신적으로가 아닌 육체적으로, 그게 정말 가능하다는 걸요. 하지만 그날 전 분명히 보았어요. 높은 옥상에서, 바로 이 옥상에서, 아버지가 그 꿈꾸던 이상을 실현하는 모습을, 이제껏 본적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날아올랐어요. 전 우연히 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걸 목격했어요. 아버지는 옥상에 서서 두 팔을 벌린 뒤 뛰었어요. 잠시간 떨어지나 싶더니, 놀랍게도 다시 솟구쳤어요. 그리고 안개가 몰려왔죠. 그렇게 아버지는 사라졌어요.

그는 아버지의 무덤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가 무덤에 관해 물어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이 다 달랐다. 누군가는 그가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다에 뿌려졌다 했고, 누군가는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모두 얼버무리기 바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진 분명했어요.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꿈꾸던 날개를 펼치고 행복으로 가득 찬 곳으로 떠난 거예요. 아버진 아직도 저의 믿음 속에 살아 계세요.

아내가 떠나고 1년이 지난 후 그녀를 만났다. 먼저 연락한 것은 그녀였다. 그에겐 먼저 이야기하자고 할 자격도, 용기도 없었다. 미칠 듯이 보고 싶었지만, 정작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끊임없이 울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그는 도무지 알 수 없었기에. 카페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며 그는 끊임없이 다리를 떨고 담배를 피웠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순간이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걸어와 그의 앞에 앉는 순간, 그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장면들과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그 순간이 마치 슬로우모션처럼 느리게 보였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머리를 짧은 단발로 자르고, 어둡고 단조로운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견디기 힘든 슬픔을 겪은 이의 것이었다.

오랜만이네. 너무나도 평범한 이 말에 그만 웃어 버렸다. 그러게. 몇 년 만이야. 실없는 소리에 더 실없는 소리로 응했다. 그때 그는 속으로 내심 이런 실없는 이야기들만 둘 사이에 이어지길 바랐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마치 판도라의 상

자를 여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잘 지내. 잘 지내냐는 물음에 대답. 너는 어때. 예의상의 질문이었지만 이 말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했다. 괜찮은 사람 시늉이란 시늉은 다 내고 있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괜찮지 않다는 걸. 나도 괜찮지 않지만 너는 나보다 더 힘들 거라는걸. 하지만 대답은, 나도 잘 지내.

미안해. 영원 같던 침묵을 깨는 한 마디. 오랜 시간 함께한 그녀였지만 그 시간이 무색할 만큼 그 잠시간의 침묵이 그토록 불편했다. 뭐가 미안하냐고,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외치고 싶은 마음을 움켜쥔 채, 나도 미안해.

당신을 떠나는 게 아니었어.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이해해.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리고 또다시 침묵.

편지가 있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온 세상이 새카맣게 변했다. 어두컴컴한 세상에 빛이라곤 없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었다. 분명히. 그를 지배하던 세상이, 조금이나마 남아 그를 지배함과 동시에 그나마 그를 지탱해주던 그 세상마저 무너져내리는 기분이었다. 읽기 두려웠지만, 동시에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이제야 주는 걸 용서해. 당신을 너무 원망한 나머지 줄 수 없었어. 이젠 알아. 당신은 잘못이 없어. 그녀가 내민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에게 그녀가 말했다. 잘 지내야 해. 먼저 갈게.

오랫동안 편지를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작별인사조차 고하지 못했다. 차마 읽지 못한 채 집으로 가져와 식탁 위에 두었다가 술을 한잔 걸친 채로 열어보았다. 이미 그의 얼굴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편지 안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몇 가지 존재했다. 아무리 읽고 읽어도 그가 알던 딸이 아닌 것만 같았다. 편지가 닳을 정도로 읽은 뒤 그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은 한마디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젠 꿈을 꾸려 해요, 이 한 마디였다.

물론 그도 알고 있었다. 그 꿈의 의미를.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진정한 의미를.

오늘 전 날기 위해 이곳으로 왔어요. 당신을 기다린 건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어서였고요. 중요한 실험 전에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비상을 목격한

것처럼, 누군가 저의 비상을 목격해주길 바랐어요. 믿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저를 막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뛰어야 해요.

저는 날아오를 거에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새로운 꿈을 꾸러 갈 거예요.

당신은 느껴본 적이 있는가. 지하철 좌석에 앉은 채 창밖 풍경을 편안히 바라보다, 다음 역이 가까워졌다는 안내방송을 듣는 순간, 시야에 빠른 속도로 잠입해올 다음 역의 모습이 가져오는 공포감을. 그 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자신이 보던 풍경의 안정감을 깨버리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섞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를.

호은의 풍경은 이미 뒤죽박죽이 되었고, 이제 그는 간절하게 경우의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다.

날 수 있다, 라.

당신은 감히 경우와 호은을 비난할 수 있는가. 그들이 꾸는 꿈을 막아설 용기가 있는가.

그래 당신은, 경우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는가.

5

그리고 전 실제로 보았어요. 그는 날아올랐어요.

경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호은을 쳐다본다.

그리고 말한다.

표경우의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 실종되었지.

호은이 경찰을 놀란 눈으로 바라본다.

미쳐버린 나머지 사라져버렸다고. 그 미쳐버린 작자가 자기 아들까지 죽게 만든 거야. 당신은 그 광경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고.

죽지 않았다니까요. 두 사람 다 비상한 거라고요.

경찰이 포기한 듯 한숨을 쉰다.

미쳤군. 그 부자처럼, 당신도 미친 게 분명해. 나가.

호은이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본다. 거센 바람에 구름들이 바삐 움직인다. 그는 마음을 다해 믿는다. 저 구름들 사이에 자신의 딸과, 표경우와 그의 아버지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담배를 한 대 문다. 방지턱에 걸터앉아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인다. 그리고 내뱉은 하나의 숨엔 그의 10년이 묻어있는 듯하다.

그들이 날아간 그곳엔, 슬픔이 묻어나는 꽃향기는 아직 남아 진동함에도, 그 향기마저 사랑하게 할 기쁨이 있기를.

인간은 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호은은 진정으로 행복하다.

표호은. 경찰이 부른다.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다.

그 순간, 호은은 나비가 자신에게서 날아갔다고 생각한다. 작지만 힘찬 날갯짓을 하며, 뒤 한번 돌아보지 않은 채로 떠나가던 그것은 머지않아 땅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다. 그제야 그는 그 나비가 담뱃재임을 깨닫는다. 그럼 그에겐 날개가 남아 있다는 의미였으니,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